

기대 수준 못 미친 조계종 1차 법인 등록

9월 30일 등록 마감... 17개 대상 법인 중 9개 등록

조계종 총무원이 중점 추진하는 법인 종단 등록이 9월 30일 1차 마감됐다. 1차 대상은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17곳이었다. 이중 9개 법인들이 종단 등록을 했으며, 8개 법인이 등록을 보류하거나 거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종단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찰보유법인으로 분류된 9곳 중 6곳이 등록했다. 등록을 한 사찰보유법인은 이미 이행합의를 통해 등록의사를 확정지은 대각회를 비롯해 안국선원, 백련불교문화재단, 성륜불교문화재단, 안양원, 한마음선원 등이다.

사찰보유법인 중 등록하지 않은 법인은 종단과 갈등 중인 선학원과 탈종을 선언한 송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보선원, 동주 스님이 운영하는 보리동산 등 3곳이다. 하지만 보리동산은 내부 문제를 조율하고 등록할 것을 알려 추후 등록키로 했다.

사찰법인의 종단 등록은 저조한 편이다. 조계종 원로위원 현해 스님이 설립한 조계종 성찬회와 종단에 기증된 여진불교문화재단, (재)연화 등 3곳만 종단 등록했다. 반면 강남불교의 한 축인 능인선원과 대구·영천 지역 대형 사찰법인인 만불회를 비롯해 세등선원, 옥련선원, 승

산국제선원 등 5곳은 등록하지 않았다. 다만 옥련선원은 추후 등록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심 조계종 총무차장은 "재단의 내부 조율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직 법인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 등록 결정을 못하고 있는 법인이 일부 있지만 그동안 종단과 깊게 인연 맺어온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대부분 등록한 것으로

한마음선원 · 대각회 등

사찰보유법인 6곳 등록

선학원 · 법보선원 미등록

사찰법인은 3곳만 등록

특성 고려치 않아 잡음 다

"협의기구 구성해 法 개정"

보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법인과 종단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등록 마감은 조계종에 손실을 끼친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사찰 500여 곳을 보유한 선학원과 같은 현재 진행형이며, 종단 최고의 선지식종 한 분인 송담 스님이 법보선원의 법인 등록을 거부하고 탈종한 것은 종단의 큰 상처

로 남았다. 여기에 서울 강남 3대 사찰 중 하나인 강남불교를 이끈 능인선원과 대구·영천 지역은 물론 전국에 3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한 만불회의 이탈도 종단 입장에서는 뼈아픈 손실이다.

이번 법인법 등록마감을 지켜본 관련법인의 한 관계자는 "법인 등록 기간이 짧아 여론 수렴이 부족하고 법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롯된 잡음들은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일부 법인들은 사찰 재정 투명화를 위해 재가 이사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정에 맞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각회의 사전 이면합의를 통한 등록 과정을 지켜보며 법인법의 합리성에 의구심을 품고 미등록한 법인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군소 법인에 대한 행정성 논란을 명확히 해소할 처방책도 아울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같은 여론을 고려해 주요 등록 법인들과 관련 사람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국장 남진 스님은 "법인 특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협의의 기구를 만들어 누구나 법인관리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 신성민 기자



절집 국화 향기와 함께 가을이 성큼

10만 송이 국화로 가득한 팔공총림 동화사로 날들이 나온 유치원생들이 가을의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동화사는 경내 일원에서 '제5회 팔공산 송시축제'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송시국화축제'도 함께 진행된다. 국화 글=정혜숙 기자 · 사진제공=동화사

한국불자들 持戒도 經學도 없다

〈지계〉 〈경학〉

조계종 불교사회학, 2014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종교 경전(자주 읽는다)

계율 및 계명 준수(잘한다)

한국사회의 불자들은 자신의 종교가 가진 계율을 지키는 데 소홀하고 경전 공부에도 관심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기 신앙에 대한 만족도는 불교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9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종교생활 및 종교경험에 대한 인식' 부분의 종교의 계율·계명 준수 정도를 묻는 질문에 34.9%가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49.2%는 '그저 그렇다'로 답했다. 하지만 계율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 신자 중 대부분이 개신교(49.5%)였고, 가톨릭(40.9%)과 불교(21%)가 뒤를 이었다.

평소 종교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는 질문에 22.8%가 '자주 읽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44.5%는 '종교집회에 참석할 때만 읽는다'고 말했다. 경전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종교 신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개신교(37.8%)였다. 불교 신자 응답률은 7.9%에 그쳤다. 동체 대비를 위한 봉사활동 실천

역시 불교가 가장 낮게 집계됐다. '봉사활동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불교는 54.5%에 달했다.

신앙생활의 만족도도 불교가 최하위였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신앙 만족도 '最下' 수준

재정 투명성 여전히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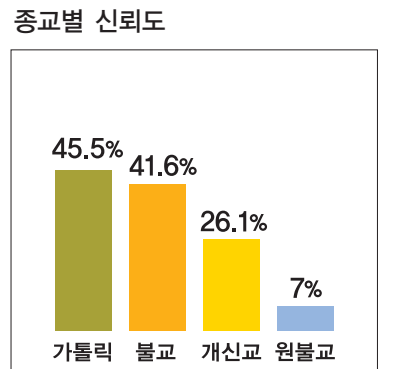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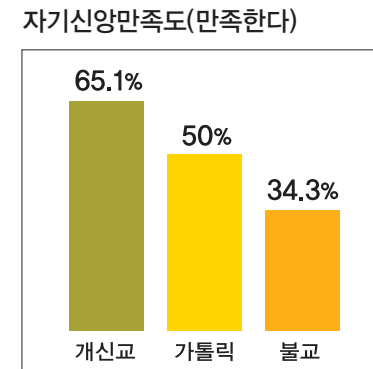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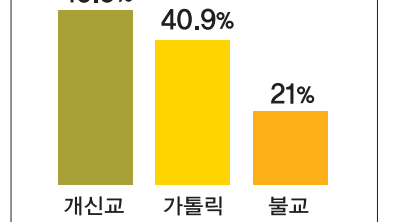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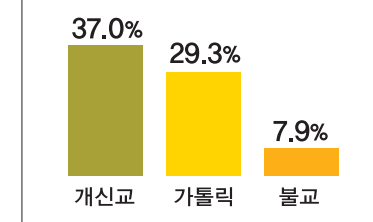
신뢰도 불교 2위·가톨릭 1위

사회발전 기여도 '불교' 높아

최근 대사회 활동 호감 상승

한국불교의 재정 투명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국민들은 불교계의 교단이나 사찰 재정의 투명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절반이 넘는 54.5%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종교별 신뢰도는 가톨릭이 45.5%로 가장 높았고 불교는 41.6%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신교는 26%에 그쳐 신뢰도가 가장 낮



조계종 16대종회의원 후보 전원 '이상無'

선관위 30일 후보자 자격심사... 10월 1일부터 선거운동

조계종 16대 중앙종회의원선거가 입후보자 자격심사에서 후보자 전원의 자격이 이상 없음으로 결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안)는 9월 30일 제295차 회의를 열고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할교구 등 24개 교구와 직능 대표, 비구니 대표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진

행했으며, 전원 이상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23교구 관음사에서 입후보한 법우 스님에 대해서는 자격에는 이상이 없지만 호법부에 별도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첨부 서류에 범죄 이력 10여 건이 확인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와 함께 2교구 용주사로 출마한 흥법 스님은 회의 직전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비구니 대표 인수 스님은

후보 등록마감 전 자진 철회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해 15일 간의 선거 일정이 진행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할 예정이며 같은 날 직능과 비구니 대표 선출이 이뤄진다. 또한 제16대 중앙종회의원선거 투표는 16일 오후 1시 전국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호국안보 · 국가경제발전 · 국민화합기원

제 1회 한국전쟁 학도병 희생자 추모음악회 (위령대재)

2014년 10월 11일 (토) 오후 1:30 ~ 5:00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라온제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

한국전쟁 낙동강 최후의 전투에서 육탄으로 방어하여 승리를 이끈 학도병들의 위대한 희생을 잃은지 60년!

우리 부산광역시불교승가연합회에서 호국안보, 국가경제발전, 국민화합기원을 위하여 위대한 희생을 기려 추모합니다.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승가연합회

주관: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특별후원:

부산광역시

부산시방보훈청

후원: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

부산 MBC

부산광역시

불교TV

BBS 불교부산방송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64 베스트그린빌딩 4층 401호 전화 051-557-1041~3

팩스 051-557-1045

www.bsab.or.kr

나눔과 기쁨의 동행

부산광역시불교승가연합회